불자 세상보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실천기대'

"종교편향 없애야 정의사회"

사찰환경보존법 개정등 '주목'

국민들은 김대중씨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가장 바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년반 안에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실업을 최소화하고 물가불안도 잡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불교계는 이와 함께 '불교계 공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는 10개항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8월 본지의 서면인터뷰에 응해 불교관련 21개항의 질문에 응답, 종교정책을 밝혔다.

〈본지 139호-8월 20일자, 인터넷 사이트 http://www.buddhapia.com 참조〉

또 10월 7일 불교방송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종교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진정한 정의사회"라며 자신의 종교관을 밝혔다.

〈본지 146호 - 10월 15일자 참조〉

단지 '약속했으니 이뤄지겠거니' 기다려서만은 안된다. 몇 가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불교관련법 제·개정과 사찰환경보존 관련 사항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편향없는 종교정책'은 대통령 당선자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에 공평한 정신이 깃들어야 가능하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자윤리로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군내 1인1종교 갖기운동에 대해 본지의 질의에는 '반대'했다가 최근 개신교측의 질문에서는 '지지'로 급변한 것은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불교계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공약도 있다. 불교전통문화 복원,불교방송의 지방국 개국 확산은 불교계가 먼저 나서야 할 대목이다. 김 대통령당선자도 공약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 불교계의 선행의지를 촉구했다.

IMF체제하의 긴축·저성장 기조의 여파로 문화예산이 축소되면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인지는 대통령당선자와 불교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전체 공직사회로 확산.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로 확립하는 방안 검토.

불교관련법의 제·개정 추진 전통사찰보존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개정 및 고도(古都)보존법 제정.

사찰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 불교관련 법령 가운데 사찰환경보존의 항목에 자연경관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문화환경의 보존도 법적으로 보장.

문화재관리국 '청(廳)' 승격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의무 할당.

불교관련 공약

불교전통문화 복원 지원 이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원. 음악 미술 사회 윤리교육 등 전체교육에 불교를 포함한 민족전통문화의 비중 제고.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성보를 환수해 소장하고 여기에다가 한국불교문화의 총체적인 역사와 현황을 전시, 내·외국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대전 창원 전주 춘천 등 방송국 4가소 신설과 충주 울산 강릉 제주 진주 중계소 설립계획 등을 적극 지원. 출력강화(현재는 5kw)도 제도적으로 보장.

국립공원입장료 제도 폐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 전까지 공원입장료의 사찰분배익을 증액.

팔만대장경 한글화·전산화 지원 팔만대장경의 한글화와 전산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민족문화의 보존·전승 차원에서 지원.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 향후 불교계가 통일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율적인 남북 불교교류의 적극적 지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1월 8일 불교지도자와의 대화모임을 갖고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이행은 김 당선자와 불교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눈

약속은 목숨보다 귀한 것

김 대통령당선자의 불교계 공약은 2천만 불교도와의 굳은 약속이다. 경전에서는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다고 가르친다.

사냥을 나갔던 왕이 길을 잃어 산골짝에서 귀신을 만나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때 왕은 귀신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한 도인을 만나 궁전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돌아가 그를 만나고 온 뒤 너에게 먹히리라."

귀신은 왕을 놓아주었고, 왕은 궁중으로 돌아가 도인에게 보시를 한 뒤 후사를 태자에게 맡기고는 귀신에게로 돌아왔다. 귀신은 왕의 신의에 감동되어 예로써 사과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구잡비유경〉

이렇게 들었다

현 경제위기는 한국의 기업·정부·정치가와 관료를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인들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은 결손을 감추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양산했으며,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위장하는 등의 신뢰성 없는 행태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새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개혁하여 대외적인 신뢰회복에 나설 때이다.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얻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신뢰 "믿음에서 모든 덕 나온다"

▩온갖 것(一切行)은 믿음으로 으뜸을 삼으니,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범망경〉

▩착한 벗을 가까이 하면 신심을 얻는다. 이 신심은 보시와 그 과보를 믿음이며, 선과 그 과보를 믿음이며, 악과 그 과보를 믿음이며, 생사의 괴로움이 무상하여 소멸하는 데서 옴을 믿음이다.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신심을 얻음으로 정계(淨戒)를 닦으며, 보시를 늘 즐기며, 지혜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열반경〉

▩여러 재물 중, 믿음이 제일 가는 재물이다. 〈별역잡아함경〉

▩온갖 공덕은 믿음을 사자(使者)로 삼는다. 그러기에 보물중에서 믿음이 으뜸이다. 〈대장엄경〉

▩믿음은 더러운 작용이 없기에 청정함을 가지고 교만을 없앤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공경의 근본이며, 법장의 제일가는 재물이어서, 청정한 마음의 손이 되어 여러 덕행을 받아들인다. 〈화엄경〉

▩횃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믿음에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제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자신이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 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금광명경〉

▩믿는 마음은 곧 성실한 마음이다. 부처님을 따라 기꺼이 불국정토로 가는 심원한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처한 곳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이 비를 맞는 자는 그것을 작은 무리로 모아 조직과 생활공동체로 모아들이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음의 대양에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팔리 증지부〉

생활정보

모국상품 구매단 발족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20여개국에 거주하는 30여명의 상공인들은 16일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모국상품 구매단' 발족식을 갖고 경제위기에 처한 모국을 돕기로 했다. 구매단은 내년에 △모두 2천만달러(약 3백억원) 상당의 한국물품을 구입하며 △모국투자 활성화 △모국에 달러 보내기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10원 동전모아 이웃돕기

환경미화원들이 길에 버려진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동래구 온천동 사직동지역 환경미화원 36명은 지난 6월부터 동전을 모으기 시작, 16일 그동안 모은 10만3천9백50원을 동래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버려진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와줄 계획이다.

버려진 아이키우기 38년

버려진 영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이정례씨(67, 수원 경동원 보육사)가 한국전력이 수여하는 '97 좋은 한국인'상 수상자로 14일 선정됐다. 이씨는 59년부터 경동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펴왔다. 그동안 이씨가 키워 입양보낸 아이들은 1천5백여명에 이른다.

이웃돕기 잇단 재산기증

70대 할머니와 30대 부부가 각각 20억원대의 재산을 대학과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다. 문순이(76·부산 구서2동)할머니는 17일 고려대 홍일식총장에게 서울방배동 1백40여평의 대지(시가 20억원)를 법대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윤희중(장윤 실내건축디자인 대표) 장은경씨 부부도 17일 시가 20억원 상당의 임야를 복지사업을 할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백혈병어린이에 장난감

블록완구 업체인 레고코리아(대표 이윤하)는 15일 1억원 상당의 완구 5천 상자를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전달, 어린이들의 완치를 기원했다. 레고코리아는 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50명과 완치된 어린이 3백명을 초청해 위로행사도 열었다.

부유층 고가 외제품 반입

IMF 구제금융 한파 속에서도 일부 부유층의 외제고가품 반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발된 밀반입 휴대품은 골프용품 7백53개를 비롯 양주 녹용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등 1천여건이 넘었다.

적발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나 내국인 출국자가 하루 1만2천~1만3천명에서 7~8천명 수준으로 줄었음을 감안하면 적발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내버스 결행 시민 불편

시내버스들이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결행을 일삼고 있다. 인천 불로동에서 시내를 오가는 17번과 17-1번 시내버스는 중간에서 불법 회차해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학생은 1주일에 2~3차례 지각하기 일쑤라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직원을 배치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위험 경고

치료·예방법이 없는 조류독감이 인체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다.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홍콩에서는 각급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병아리·가금류를 만지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다.

연하장 쓰레기 1천5백톤

지난 한해 동안 버려진 연하장 쓰레기는 1천5백톤. 처리비용도 12억원이 들었다. 환경부는 매년 연하장과 크리스마스카드 제작용으로 80만달러어치의 펄프가 수입되고 있다며, 버릴 때는 반드시 신문지처럼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은 15일 청소년 인터넷방송국(http://koreayouth.org)을 개국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정규방송을 실시한다. 청소년대상의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 연예 축제 등의 행사와 논술지도 등을 방송할 계획이다.

새상품

'자동차용 가습기'

겨울철 운전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과 정전기를 예방해 주는 '자동차용 가습기'가 나왔다.

자동차 시가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지능 인식 장치가 부착돼 있어 아기를 태우고도 장시간 여행할 수 있다.

또 험한 주행에도 물이 새지 않는 방수구조로 돼 있으며 불쾌한 히터 냄새를 제거해 쾌적한 운행에 도움을 준다.

(주)하림. 가격은 9만8천원. (02)636-7138

예문동양사상 아카데미
98년 겨울강좌!

예문동양사상아카데미는 동양사상의 연구와 대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이 개설하는 강좌입니다. 학술적 품격을 유지하면서 대중들이 동양사상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화요강좌 : 주역강좌1-동양적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김충열(본원 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봄강좌로 이어져 완결되는 강좌의 제1부. 주역의 부호체계와 괘효구조를 이해하여 易理를 궁구함으로써 心身修養과 處世應變, 事業經營에 관한 차원 높은 동양의 지혜를 얻는다.
· 1월 6일 : 주역이란 무엇인가?
· 1월13일 :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월2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자연사상
· 1월2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생명사상
· 2월 3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교육사상
· 2월10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윤리사상
· 2월17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정치사상
· 2월24일 :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사회사상

● 금요강좌 : 동양철학,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현대인이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동양적 대안을 찾아가는 강좌. 우리 사회에 충만한 '우리 것 찾기'의 열기를 수용하되, 차분한 시선으로 동양사상의 현대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1월 9일 : 왜 다시 동양사상인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1월16일 : 동양의 이상적 삶 - 한홍섭(철학박사)
· 1월23일 : 동양의 性의식 - 윤천근(안동대 교수)
· 1월30일 : 동양의 여성관 - 이숙인(철학박사)
· 2월 6일 : 생태문제와 동양적 대안 - 윤천근(안동대 교수)
· 2월13일 : 동양의 눈에 비친 자유민주주의 - 박원재(철학박사)
· 2월20일 : 유학은 자본주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홍원식(계명대 교수)
· 2월27일 : 유가적 전통에서 본 동양의 정의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매 회 100분(오후 7시 - 8시 40분) 강의로 진행
◎ 각 강좌별 수강료 : 100,000원
◎ 수강료 납입구좌 : 국민은행(093-24-0317-712 홍원식)
◎ 문의 및 접수 : 925-5914 (담당: 박진영)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변비

성명 ; 진 (36세)
주소 ; 부산 광역시 상구 아현 6동 15유2-
Tel ; 051) 636 - 8[illegible]

저는 오랜 세월을 만성 변비로 고생한 주부 입니다. 만성 변비란 병원에서 대략 [illegible] 변비 증세가 어느정도 있는가 하면, 10일에서 15일은 허다하게 있는일이고 심한땐 한이라지 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심하면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서 해결하는 형편이다 그러던중 신문에 광고 [illegible] 에서 변비 증상이 있는 (점음)을 사가지고 와서 반신반의하며 써 보던중 (1개월가량) 오른쪽 귀퉁이의 (3곡 정도) 변을 보았다 그리고 [illegible] 배꼽을 하나 건강관리를 하며 손을 부비어 장도 [illegible] 이번 우연히 손을 보 [illegible] 이번에 효과를 보았는 바 저 같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을 꼭 체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불면증에도 있었는데 옥베개 옥베개 사용후 저도 잔도 아주 잘 잔답니다

1997. 7. 15

백옥 옥옥옥
팔반 벨네이
염팔 트의불
주지 찌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인심지병 무병장지의 명철적 체운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외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